

오층탑

국보

불탑은 고대 인도의 스투파(사리탑)에서 유래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현세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후쿠지 절의 오층탑은 730년에 고후쿠지 절을 창건한 후지와라노 후히토(659~720년)의 딸인 고묘 황후(701~760년)의 명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다섯 차례나 화재의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의 탑은 1426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높이는 50.1m로 일본에 현존하는 목조탑으로는, 교토 도지 절의 오층탑(약 55m)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처마가 깊은 것으로 유명한 이 탑은 나라 시대(710~794년)의 건축을 답습하면서 무로마치 시대(1336~1573년)의 역동적인 건축 양식을 교묘하게 접목시킨 모습입니다.

첫 번째 층의 각 방향에 1구씩 여래상이 모셔져 있고 그 각각에 2구의 보살상이 협시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대승불교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남북 축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의 부처인 석가모니는 북쪽 면에, 미래의 부처인 미륵은 남쪽 면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서 축은 공간을 나타내며 서방 극락정토의 부처인 아미타는 서쪽 면에, 동방 정유리정토의 부처인 약사는 동쪽 면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남북과 동서의 축이 교차하는 곳이 현세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중심 기둥이 있는데, 이 심주는 돌로 된 초석 위에 서 있습니다. 초석 안쪽에는 불사리(석가모니의 유골)를 모신 용기가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